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 22집
2026년 pp. 37-65
https://doi.org/10.22957/mses.22..202603.37

한국 다문화 연구에 나타난 베트남 관련 연구동향 분석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이태희 · 하동환*

(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 하노이국립대학교)

1. 서론
  1.1. 문제 제기
  1.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2. 거시적 동향 분석
  2.1. 연도별 동향
  2.2. 연구 대상별 동향
3. 주제별 동향 분석
  3.1. 주제별 연구 축적 양상
  3.2. 2021년 이후 신흥 의제 및 전환 양상
  3.3. 주요 연구 경향 및 시사점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KCI 등재·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의 축적 양상을 문헌 기반 동향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특정 에스니

* 제1저자: 이태희, 교신저자: 하동환

www.kci.go.kr

시티를 본질화하려는 목적을 넘어, 한국 다문화 담론이 베트남 출신 이주 배경 집단을 어떻게 표상하고 대상화해 왔는지 지식 생산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추적하기 위함이다. KCI에서 7개 검색어로 588편을 수집한 뒤 주제 적합성 검토와 중복 제거를 거쳐 159편을 최종 확정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증가해 2016–2020년에 정점(58편)을 보였으며, 다문화 구성원 대상 연구가 78%로 우세하였다. 학문 분야는 사회과학(59편) · 교육(31편) 중심이고, 사례연구가 55.3%로 가장 많았다. 주제는 결혼 이주 · 가족, 문화콘텐츠 기반 상호문화교육, 모자보건 · 정신건강의 세 축으로 집중되었으나, 2021년 이후 이주 경로 다층화, 디지털 정체성, 레짐 및 공간 분석 등 새로운 관점의 확장이 관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이주민 당사자 적응 중심 시각을 넘어, 비다문화 구성원을 포함한 주류 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제도적, 관계적 맥락을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다문화 연구가 재구성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다문화 연구 동향, 베트남 이주 배경, 상호문화교육, 관계적 맥락, 이주 경로 다층화

1. 서론

1.1. 문제 제기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06년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정과 이주 배경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체계화되면서, 다문화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주변적인 인구 변동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다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의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다문화가정, 다문화 청소년,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문적 연구의 지속적인 축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최근의 인구 통계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

www.kci.go.kr

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58만 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246만 명)보다 약 1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주민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5%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전체 규모 역시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인구 수준과 유사하여, 외국인 주민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첫 집계 당시 53만 6,627명에서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일시적인 감소를 겪었으나, 2022년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며 최근 3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주민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회 구조 변화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외국인 주민의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약 204만 명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하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은 약 24만 5천 명(9.5%),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약 29만 5천 명(11.4%)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등 외국인 주민의 이주 양상이 단일한 형태의 정주화로 귀결된다기보다는, 체류 지위, 노동 조건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다층적・유동적 이동 구조임을 시사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한국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베트남 출신이 약 23.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국적 미취득자 집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유학생은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다문화 인구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주 유형 또한 다층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환경 속에서 국내 학계에서도 다문화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들이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적응 및 상호

www.kci.go.kr

작용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연구 대상이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 이주 배경 집단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연구 주제 역시 사회적 적응, 정체성, 가족관계, 제도적 지원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축적은 다문화 연구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연구의 양적·질적 축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서, 최근에는 개별 연구 성과를 넘어 국내 다문화 연구의 전반적 흐름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연구동향 분석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 언론 담론을 시기별로 분석하거나, 특정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변화를 고찰한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연구가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 연구동향 분석은 대체로 다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이주 배경 집단들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학술지 또는 특정 연구 영역에 분석 대상을 한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다문화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연구 주제와 방법론이 세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출신국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 축적의 양상과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와 노동 이주를 통해 형성된 베트남 출신 인구는 다문화 집단 중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 연구 전반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을 뿐 그 축적 양상을 독립적으로 조망한 시도는 드물었다. 나아가 베트남 이주 배경 집단은 단순한 양적 비중을 넘어, 초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담론과 결합된 여성 결혼 이민자 중심의 고도로 젠더화된 이주에서 출발해 최근 유학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체류 지위와 계층이 다층적으로 분화하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를 독립된 분석 단위로 설정한 것은 특정 에스니시티를 본질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이 특정 출신국 집단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표상해 왔는지 그 지식 생산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학술적 기획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관련 연구'라는 범주 자체가 지니는 개념적·방법

www.kci.go.kr

론적 모호성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를 연구 공간으로 한 다문화 연구와 베트남 현지에서 수행된 정책 연구나 사례 연구, 국제이주 연구, 문화・역사 연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범주의 혼재는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베트남 관련 연구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며,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발표된 KCI 등재지 논문 가운데, 국내를 배경으로 베트남 이주 배경과 관련된 다문화 현상을 다룬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다문화 연구'란 단순히 이질적인 문화나 언어의 병렬적 존재를 다루는 것을 넘어, 이주를 매개로 형성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이주민 및 그 자녀)과 주류 사회 간의 상호작용, 적응, 정체성 형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적, 교육적 맥락을 탐구하는 학문적 시도(윤인진 2008: 73)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 다문화 연구에서 '베트남'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 대상화되고 구성되어 왔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연도별 분포, 학술지 영역, 연구 방법론적 특성, 연구 대상 및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나아가 개별 연구들에 나타난 주제적 편중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CI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 축적 양상과 주제적 편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헌 기반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을 연구 내용의 핵심 초점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언어, 인문과학・역사, 사회과학, 정책・법의 6개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관련 연구의 포괄적 수집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www.kci.go.kr

Index, KCI)에서 다문화 연구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주요 탐색어(예: 다문화, 이주, 문화, 교육 등)를 준거로 삼되(박윤경 외 2022: 112), 특정 집단(베트남) 및 연구 맥락(다문화/이주/교육/언어)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검색어를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다문화', '베트남 교육', '베트남 이주', '베트남 이중언어', '베트남어 다문화', '베트남어 교육', '베트남어 이중언어' 총 7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58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는 동일 논문이 복수 키워드에서 중복 산출된 결과를 포함한 총량이다. 검색어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 교육' 328편(55.8%), '베트남 이주' 100편(17.0%), '베트남 다문화' 99편(16.8%)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키워드가 61편(10.4%)을 차지하였다.

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검색할 경우 KCI 등재 및 후보지에 해당하는 논문 편수가 더 크게 산출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RISS의 경우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 시기의 논문까지 '후보지' 범주에 포함하여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가 요구하는 표본의 등재 지위 정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CI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표본을 확정하였으며, RISS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논문은 본 논저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KCI에서 수집된 588편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정의한 '다문화 연구'의 범주에 부합하는지 1차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논문의 제목, 초록, 주제어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375편을 배제하였으며,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맥락적 부합성이 결여된 연구를 배제하였다. 이주나 초국가적(transnational) 상호작용의 맥락 없이, 베트남 현지의 국내 정책, 역사, 문학 작품 자체만을 다룬 지역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주제적 부합성이 결여된 단순 어학 및 문법 연구를 배제하였다. 다문화 구성원이나 이주 배경 학습자와 관련 없이, 한국인 학부생 대상의 전공 베트남어 교수법이나 베트남어 통사론 현상 분석 등의 순수 어문학 연구는 제외하였다. 셋째, 이주 및 상호문화적 맥락이 없는 일반적인 양국 간

www.kci.go.kr

경제, 외교 교류 관련 연구를 제외하였다.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 주제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는 213편으로 압축되었다. 이후 동일 논문이 여러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중복 산출된 사례를 제거하여 중복을 배제한 순수 논문 수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59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의 동향분석 및 분야별 비교는 이 159편을 기초 자료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표본(159편)을 6개 연구 분야로 분류한 결과, 보건・의료 16편, 교육 31편, 언어 19편, 인문과학・역사 22편, 사회과학 59편, 정책・법 12편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는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특정 학문영역에 집중되어 축적되는 양상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영역이 공존함을 시사하며, 후속 장에서는 이러한 편중의 양상과 그 의미를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2. 거시적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1.2에서 확정한 최종 분석 대상 논문 159편을 중심으로,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되어 왔는지를 형태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 동향을 연도별 분포와 연구 대상별 분포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분석에서는 연구 축적의 시기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21년 이후의 네 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각 시기별 논문 분포와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이어 연구 대상별 분석에서는 논문들이 주로 어떠한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 초점과 편중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2.1. 연도별 동향

연도별 논문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 대상 논문 159편 가

www.kci.go.kr

운데 2006-2010년 구간에는 13편, 2011-2015년 구간에는 46편, 2016-2020년 구간에는 58편, 2021년 이후에는 42편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는 초기에는 제한적인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인 증가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06-2010년(13편)은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의 형성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연구는 전체 분석 대상의 약 8.2%를 차지하며, 연구 수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연구 주제 역시 베트남 출신 이주 배경 인구를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주여성 일반의 일부로 포함하여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양상은 베트남 관련 연구가 아직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탐색적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11-2015년(46편)에는 연구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약 28.9%를 차지하였다. 이는 직전 시기와 비교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국내 다문화 연구의 주요 하위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설문 조사나 통계 분석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연구 주제 역시 적응, 가족 관계, 교육 경험 등으로 점차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6-2020년(58편)은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논문이 집중된 시기로, 전체의 약 36.5%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구 대상과 연구 주제가 한층 더 확장되며,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의 전환기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 성인 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지역사회 적응, 사회적 관계, 정체성 형성 등 보다 다층적인 주제가 다루어졌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질적 연구나 혼합 연구가 늘어나면서 연구 접근의 다양화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42편)에는 전체의 약 26.4%가 분포하며, 연

www.kci.go.kr

구 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가운데 연구 주제와 분석 관점의 다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최근 시기로 갈수록 베트남 이주 배경을 다문화 일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기보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 범주를 설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 간 차이, 이주 경로의 다양성, 정책 및 제도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도 점차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기존의 주제적 축을 유지하면서도 분석 관점과 연구 대상 설정 방식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는 2006-2010년의 형성기, 2011-2015년의 확장기, 2016-2020년의 전환기, 2021년 이후의 다변화기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도별 분포는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단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연구 영역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로서 기능한다.

각 연도 및 기간별 분석 대상 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연도 및 기간별 분석 대상 논문 수

2006-201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분석 대상 수	1	1	3	1	7	13
	비율(%)	0.6	0.6	1.9	0.6	8.2	8.2
2011-2015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석 대상 수	5	6	9	9	17	46
	비율(%)	3.1	3.8	5.7	5.7	10.7	28.9
2016-2020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분석 대상 수	9	12	18	9	10	58
	비율(%)	5.7	7.5	11.3	5.7	6.3	36.5
2021-2025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분석 대상 수	3	9	7	8	15	42
	비율(%)	1.9	5.7	4.4	5.0	9.4	26.4

연도 구간별 비율의 합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함에 따라 100%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ww.kci.go.kr

〈표 1〉은 분석 대상 논문을 연도 구간별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2011년 이후 연구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2020년 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범위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2002년에 발표된 1편의 논문이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후 시기와 연속적인 연구 흐름을 형성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제도화 이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시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선행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중심 시기를 2006년 이후로 설정하고, 2002년 논문은 최종 분석 대상 및 모든 통계 기준값에서 전면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연도별 연구 동향을 통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양적으로 꾸준히 축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양적 증가가 곧바로 연구 대상의 다양성과 균형적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연도별 분포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들이 주로 어떠한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는지를 연구 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베트남 다문화 연구에서 연구 초점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왔는지, 혹은 대상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연구 대상별 동향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 159편을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가 주로 어떠한 집단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대상을 다문화 구성원, 비다문화 구성원, 2개군 이상, 기타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박윤경 외 2022)의 연구 대상 범주화 방식을 준거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먼저 다문화 구성원에는 결혼이주민, 결혼이민자, 베트남 출신 이주 배경 인구,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과 같이 다문화적 이주 배경을 직접적으로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이는 논문 제목, 핵심어, 연구 목적 및 분석 대상 서술에서 해당 집단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비다문화 구성원은 교사, 교원, 한국인 학생, 대학생 등 다문화적 이주 배경을 지니지 않은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다문화 구성원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만을 해당 범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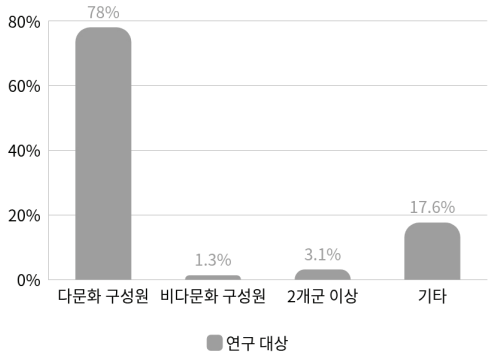
한편, 2개군 이상은 다문화 구성원과 비다문화 구성원이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설정되어 비교・대조 또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분석된 경우를 의미하며, 복수 집단이 모두 핵심 분석 대상에 포함된 논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정책 문서, 제도, 담론, 텍스트 분석 등 구조적・제도적 수준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판별 기준은 연구 대상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논문이 중복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석 절차로서 기능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연구 대상별 동향 분석이 단순한 범주 나열에 그치지 않고, 연구 관심의 집중과 확장 양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대상별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분석 대상 논문 159편 가운데 다문화 구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 124편(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비다문화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1.3%)에 불과하였으며, 다문화 구성원과 비다문화 구성원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 역시 5편(3.1%)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정책・제도・담론 분석 등 특정 개인 집단을 명시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논문은 28편(17.6%)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그림 1〉 연구 대상별 분류

앞서 제시한 연구 대상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 159편을 분류한 결과, 다문화 구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 124편(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가 주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베트남 출신 이주 배경 인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다문화적 이주 배경을 지닌 집단 자체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 정책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이 핵심 정책 대상이자 연구 대상으로 설정되어 온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 비다문화 구성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논문은 2편(1.3%)에 불과하여, 해당 범주에 대한 연구 축적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다문화 현상을 둘러싼 비다문화 구성원의 인식이나 태도, 역할 등을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다문화 구성원과 비다문화 구성원을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논문(2개군 이상)은 5편(3.1%)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다문화 구성원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복수의 집단을 비교·분석하거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다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비교적 접근은 연구 대상의 설정과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체 연구 축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또한 정책・제도・담론 분석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논문은 28편(17.6%)으로 분류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다문화 정책의 변화, 제도적 지원 체계, 사회적 담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개인 수준의 경험보다는 구조적・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두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개인과 집단의 경험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회 구조 차원의 논의로도 일정 부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국내 다문화학 분야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비다문화 구성원이나 복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대상별 분포는 국내 베트남 다문화 연구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축적되어 왔음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 상호작용적 관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룰 주제별 동향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3. 주제별 동향 분석

분석 대상 논문 159편을 주제별로 세부 분석하기에 앞서, 6개 연구 분야(보건・의료, 교육, 언어, 인문과학・역사, 사회과학, 정책・법)의 연구 유형을 이론연구, 사례연구, 실용연구으로 분류하였는데, 문헌 기반 고찰, 제도・정책・법제 논의, 개념/담론 정리, 텍스트 분석 등 새로운 실증자료 수집 없이 논지를 전개하는 연구를 이론연구로, 특정 집단・지역・기관・사례를 대상으로 설문, 통계(2차자료 포함), 면담, 관찰, 질적 분석 등 실증 자료에 근거해 현상・요인・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를 사례연구로, 교육/중재/프로그램의 개발・적용・효과검증, 평가도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책・교육 방안 및 모형 설계 등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한 처방・개입 중심 연구를 실용연구로 분류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www.kci.go.kr

〈표 2〉 6개 분야 연구 유형별 논문 수

대분류 / 유형	보건 · 의료	교육	언어	인문과학 · 역사	사회과학	정책 · 법
이론연구	1	9	3	17	8	4
사례연구	10	6	15	3	50	4
실용연구	5	16	1	2	1	4

표에 따르면 전체 159편 중 사례연구가 88편(55.3%)으로 과반을 차지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전반적으로 특정 사례나 집단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론연구는 42편(26.4%), 실용연구는 29편(18.2%)으로,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처방은 사례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분야별로는 사회과학이 59편(36.9%)으로 최다이며,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31편, 19.5%)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하며, 인문과학 · 역사(22편, 13.8%)는 이론연구 비중이 높아 텍스트 · 서사 · 재현 분석 중심의 축적이 두드러진다. 언어(19편, 12%)와 보건 · 의료(16편, 10.1%)는 사례연구 중심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정책 · 법(12편, 7.5%) 분야는 다문화 관련 제도 분석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기 분류를 바탕으로 본장에서는 주제적 전개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3.1에서는 6개 연구 분야(보건 · 의료, 교육, 언어, 인문과학 · 역사, 사회과학, 정책 · 법)별 연구가 어떠한 주제군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는지를 정리하여, 분야 내부의 중심 의제와 축적 구조를 가시화한다. 다음으로 3.2에서는 2021년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신흥 의제와 분석 관점의 확장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 축이 유지 · 강화되는 양상과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연구 방향을 함께 포착한다. 마지막으로 3.3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핵심 축을 추출하고, 분야 간 연계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특징과 그 함의를 정리한다.

www.kci.go.kr

3.1. 주제별 연구 축적 양상

보건・의료 분야(16편)는 전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경험과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이 두드러지며, 정신건강(우울・삶의 질・문화적응 스트레스)과 모자보건(임신・출산・산후・감염예방・생식보건) 축으로 연구 주제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을 다루거나(이가언・전혜정 2018), 도시-농촌 비교를 통해 정신건강 차이를 조망하는 논의(윤황・이영호 2010)처럼 '적응・정신건강' 연계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다. 모자보건・재생산 건강 관련 연구 역시 임신・출산・산후 건강관리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한 연구(정복례 외 2014; 김선희 2015; 서지영・김은영 2013; 김영미・조갑출 2017)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동일한 '건강' 의제임에도 노동이주・미등록 체류 등 체류지위와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성인 남성 이주자의 건강 취약성, 만성질환・산업보건 등으로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의료접근의 제도・언어 장벽을 다층적으로 연결하는 연구 축적은 아직 취약한 편이다.

교육 분야(31편)는 '상호문화교육/다문화 이해' 주제군이 강하게 부상하며, 특히 설화・신화・전통놀이・세시풍속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를 형성한다(김종애・김종일 2020; 양민정 2013; 2015; 오정미 2020). 이와 병행하여 교과서/교과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문화 맥락에서의 교육 내용 반영을 점검하는 접근(정유경 2018; 박균열 2008)과, 이중언어를 교과수업에 접목하거나 다문화 학습자의 학교 적응과 연계하는 논의(박정은・장인실 2023; 유승희 2019)가 축적되어 있다. 다만 연구의 무게중심이 '콘텐츠(설화・신화 등) 기반 상호문화교육'에 집중되면서, 학교 조직과 교사의 제도적・실천적 조건(교사 연수, 학교 거버넌스,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습성과의 장기 추적, 지역・학교급에 따른 교육 경험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비다문화 구성원(교사・또래・한국인 보호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독립적 분석 대상으로

www.kci.go.kr

두는 연구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호문화교육이 실제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축적이 취약하다.

언어 · 이중언어 분야(19편)는 아동의 음운 · 조음 발달 및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며(황상심 · 김수진 2015; 황상심 · 이숙향 2011; 서수진 · 성철재 2015),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이 언어발달 ·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작용의 특성을 다룬 연구가 확인된다(김선경 외 2019; Phan Hoang My Thuong · 권순희 2018).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전략 · 요구분석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점의 연구(홍종명 2013; 2014)가 축을 이룬다. 그러나 언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동 발달/가정 기반'에 주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노동현장 한국어 · 직업언어, 언어권력, 차별/낙인 담론과 언어 실천 관련 성인 학습자의 사회언어학적 층위,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언어사용 등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이다. 또한 체류 경로, 지역 · 계층, 교육 배경 등 베트남 이주 배경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 따른 언어 실천의 차이를 다층적으로 비교하는 연구 축적 역시 향후 보강이 요구된다.

인문과학 · 역사 분야(22편)는 두 갈래의 흐름이 병존한다. 하나는 설화 · 신화 비교,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인문학적 자원화에 기반한 연구로(전혜경 · 김근태 2010; 양민정 2018; 이효림 2017), 교육 분야의 상호문화교육 경향과 결합하며 '콘텐츠 및 서사 기반' 축적을 강화한다. 다른 하나는 문학 텍스트에서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재현, 타자화, 차별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비판적 흐름이다(서성란 2022; 김경민 2020). 여기에 전쟁 · 난민 · 이주사 등 역사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노영순 2014; 조흥국 2013)가 더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설화/재현" 중심의 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반면 정책 담론 · 미디어 담론 · 문학 재현을 교차시키는 장기 역사화, 아카이브 기반의 자료 축적, 동남아 · 베트남 내부 지역성에 대한 정교한 맥락화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인문 · 역사 분야 내부에서도 분석 틀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사회과학 분야(59편)는 전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의 핵심축은 결혼이주와 가족 경험(가족생활적응, 부부관계, 갈등/만족, '어머니됨', 송금과 가족관계 협상 등)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신유경 · 장진경

www.kci.go.kr

2010; 김연수 2016; 최대희 2015; 김혜선 2015). 동시에 적응・정체성・초국적 실천을 다루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김영옥・김현미 2013; 티랑란・임영언 2017) 일부 연구는 범죄・치안 담론이나 미디어 참여, 문화적 시민권 등으로 주제를 확장한다(신상철 2015; 정의철・정미영 2018). 다만 사회과학 분야의 양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주・미등록・계절이주 등 비혼인 경로의 경험을 결혼이주 연구만큼 풍부하게 축적했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며, 비교집단(비다문화 구성원, 타 국적 이주집단)과의 체계적 비교 설계, 지역・산업별 층화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학생 경로, 전문직 이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체성 등 최근 다층화되는 이동 경로를 포괄적으로 묶는 '이주유형의 분화' 관점은 이제 확장되는 단계로 보인다.

정책・제도・법 분야(12편)는 결혼이주 및 해체가족을 둘러싼 취약성(빈곤, 이혼, 한부모)과 정책 대응을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김순양・고수정 2016; 이진석 2018). 또한 출국 전 교육・사전정보 제공과 같은 사전 단계의 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김현숙 외 2012; 조항록 2016)가 확인되며, 국제이주 레짐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혼인이주 체계를 분석하는 연구(Bui Thi My Hang 2022b)도 포함된다. 다만 정책・법 분야는 표본 수가 적은 만큼 주제 스펙트럼이 넓게 분산되기보다 특정 취약성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제도 집행의 실효성(현장 집행, 기관 간 조정, 지방정부 정책의 변이)과 당사자 경험을 연결하는 연구, 그리고 계절근로・노동이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체계적 평가 축적은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요컨대 6개 분야 모두에서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는 일정한 핵심 주제군에 의해 연구 축적이 견인되는 동시에, 비교・층화・상호작용・제도 집행 등 확장 가능한 분석 축에서 공백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주제 누락이라기보다, 결혼이주・가족 중심의 문제틀과 문화콘텐츠 기반의 상호문화교육 접근이 연구 지형을 구조화해 온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확인되는 2021년 이후 신흥 의제의 등장이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재배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3.2. 2021년 이후 신흥 의제 및 전환 양상

최근 시기에는 기존의 결혼이주 · 가족 중심 축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주제가 미시 경험을 넘어 이동 경로의 다층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체성, 공간 · 자본 · 네트워크의 개념틀 등으로 확장되는 징후가 확인된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유학생 · 가족이주 · 미등록 노동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가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며, 이동을 단선적 적응 서사로 환원하지 않고 경로 · 자본 · 관계망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접근이 나타난다(Nguyen Thi Thanh Lan 외 2022; 2023; 최서희 외 2023).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정체성 구성의 장으로 분석하는 연구(김혜수 외 2024)나, 공간 생산을 매개로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지역사회 연결을 조명하는 논의(Bui Thi My Hang 2022a)는 '적응' 중심 연구의 분석 프레임을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정책 · 제도 영역에서도 혼인이주를 정부 · 브로커 · 이주자 간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레짐 분석이 등장하며(Bui Thi My Hang 2022b), 제도 변화(계절근로 등)를 당사자의 선택과 적응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확인된다(Yun Heeman 2024). 더불어 선행 연구를 재검토 · 종합하는 메타 수준의 접근이 나타나 정책 · 교육 논의의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김효선 2024).

보건 · 의료 영역에서는 비대면 개입이나 취약 집단의 경험을 포착하는 연구가 관찰되며, 기존의 모자보건 · 정신건강 중심 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구 대상의 취약성과 돌봄의 조건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전이 나타난다(송주은 · 서은희 2022; 김영수 외 2025). 교육 영역 역시 상호문화교육의 콘텐츠 중심 경향을 지속하면서도, 문화매개를 확장하거나(차정화 2024) 대학 · 후기청소년 및 해외 교육 현장과의 접점을 넓히는 연구(조영숙 · 박상현 2025)가 나타나 '교육 대상과 장(場)의 확장'이라는 변화를 시사한다. 인문 · 역사 영역에서도 공존 · 윤리의 문제를 새로운 인문학적 언어로 재구성하거나(표정옥 2024), 종교 · 자비 실천 등 다문화 현상의 새로운 행위자 범주를 포착하는 연구(정유진 · 서은숙 2025)가 확인되어, 연구 대상의 외연이 점진적으로 넓

www.kci.go.kr

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2021년 이후의 신흥 의제는 기존의 핵심 축(결혼이주・가족, 상호문화교육, 모자보건・정신건강)을 대체하기보다는, 그 주변부에서 이동 경로의 다층화, 디지털 기반 정체성, 공간・자본・레짐 분석 등 새로운 분석 언어를 공급함으로써 연구 지형의 재배치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3. 주요 연구 경향 및 시사점

분야별 연구 축적 양상과 최근의 신흥 의제를 종합하면, 국내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결혼이주・가족 중심의 연구 집중이다. 사회과학(59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경향은 보건・의료(모자보건・정신건강), 언어(아동 발달・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가정・자녀의 문화이해・학교 적응) 영역으로 연쇄적으로 확장되며 연구 전반의 기본 문제틀을 형성해 왔다. 그 결과, 베트남 관련 다문화 현상을 다양한 이주 경로와 사회적 층위(노동이주, 유학생, 미등록 체류, 남성 이주자, 직업 경로 등)까지 폭넓게 포괄하기보다는 결혼 이주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상호문화교육 연구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이 중심축으로 자리해 왔다. 교육(31편)과 인문・역사(22편)에서는 설화・신화・전통 놀이・세시풍속 등 특정 문화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동원되며 상호문화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구상과 처방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동시에 학교・교사・제도・관계망과 같은 교육의 구조적 조건을 전면에 두거나, 교육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고 맥락 변인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로 확장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내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매개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도 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 콘텐츠 기반 접근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셋째,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모자보건・정신건강 중심의 축적이 두

www.kci.go.kr

드러진다. 보건 · 의료 분야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임신 · 출산 · 양육 경험 및 정신건강과 결합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돌봄 체계의 전개와 맞물려 연구의 응집력을 강화해 왔다. 다만 이러한 축이 강화될수록 노동환경, 체류 지위, 의료 접근의 제도적 장벽과 같은 구조 요인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수 있는데, 최근 취약 집단의 경험을 포착하는 연구는 보건 연구가 개인의 경험 서술을 넘어 구조적 조건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표본에서 확인되는 연구는 '결혼 이주 · 가족—문화콘텐츠 기반 상호문화교육—모자보건 · 정신건강'이라는 삼각 구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축적되어 왔으며, 동시에 2021년 이후에는 이동 경로의 다양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체성, 공간 · 자본 · 레짐 분석과 같은 새로운 분석 언어가 등장하면서 연구 의제의 외연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함께 관찰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KCI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축적의 거시적 흐름과 주제적 전개 양상을 문헌 기반 동향분석으로 검토하였다. KCI 검색을 통해 확보된 588편(중복 포함) 가운데 다문화 연구 범주에 부합하는 논문을 213편으로 압축한 뒤, 중복을 제거하여 최종 분석대상 159편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은 '베트남 관련 연구' 범주의 혼재를 최소화하고, 국내를 배경으로 한 다문화 연구로 표본을 명확히 한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6–2010년 13편, 2011–2015년 46편, 2016–2020년 58편, 2021년 이후 42편으로 나타나,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201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2016–2020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축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이후 연구가 양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축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구 내용의 심화 · 다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www.kci.go.kr

연구대상 측면에서는 다문화 구성원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 124편(78%)으로 압도적이며, 비다문화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1.3%), 다문화・비다문화 구성원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5편(3.1%)에 그쳤다. 특정 개인・집단을 명시하지 않고 정책・제도・담론・텍스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28편(17.6%)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포는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주로 '당사자 집단'의 경험과 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다문화 현상을 둘러싼 상호작용 주체(교사・또래・지역사회・행정조직 등)와 관계적 맥락을 전면에 두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연구 분야)별로는 사회과학(59편)과 교육(31편)이 연구 축적을 주도하였고, 인문과학・역사(22편), 언어(19편), 보건・의료(16편), 정책・법(12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특정 주제군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전체 159편 중 사례연구가 88편(55.3%)으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이론연구 42편(26.4%), 실용연구 29편(18.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가 전반적으로 실증 기반의 현장・집단 분석에 의해 축적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과학 영역에서 사례연구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문과학・역사 영역은 이론연구 비중이 높아 텍스트・서사・재현 분석 중심의 축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교육 영역에서는 실용 연구 비중이 비교적 높아 프로그램・교육 방안 중심의 축적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언어 및 보건・의료 영역은 사례연구 중심 구조가 강하게 확인된다.

주요 연구 주제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결혼 이주・가족 중심의 연구 집중이 연구 전반의 기본 문제틀을 형성해 왔다. 둘째, 교육 및 인문 영역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을 문화콘텐츠(설화・신화・전통 요소 등) 기반으로 설계・제시하는 접근이 축적의 중심 축으로 기능해 왔다. 셋째,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모자보건과 정신건강 중심의 연구가 강하게 축적되었다. 동시에 2021년 이후에는 이동 경로의 다층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체성, 공간・자본・네트워크 및 레짐 분석과 같은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며 연구 의제의 외연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도 함께 관찰된다. 이는 기존의 축적 구조가 유지

www.kci.go.kr

되는 가운데, 연구 지형이 점진적 재배치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연구동향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과 분석 단위를 '결혼 이주 · 가족' 중심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인 주민 구성과 이주 유형이 다층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베트남 이주 배경 집단 내부의 경로 다양성(노동이주, 유학생, 체류 지위의 변동 등)과 생애주기(청소년기–후기 청소년–성인기) 차이를 반영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축적해 온 결혼이주 중심 문제틀의 설명력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인구 · 이동 현실과 연구 의제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향이다.

둘째, '상호작용의 주체'와 '관계적 맥락'을 전면화하는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비다문화 구성원(한국인 주류 사회)을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 비중이 극히 낮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연구가 여전히 이주민 당사자만을 '적응하고 변화해야 할 문제적 객체'로 타자화하는 경향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 이웃, 행정기관 등 주류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성찰하는 연구로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당사자 경험 분석을 넘어, 교사 · 또래 · 지역기관 · 고용주 · 중개자 ·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제도적 조건을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및 보건 · 의료 영역에서 실용 연구의 축적을 '검증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교육 방안, 프로그램 개발, 중재 효과 검증 등 실용연구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지만, 연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표준화, 맥락 변인의 통제 및 장기 추적(유지 효과) 등 평가 설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이는 실천적 처방의 확산을 넘어, 정책 · 현장에 환류 가능한 근거를 축적하는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넷째, 정책 · 제도 · 법 영역에서는 제도 설계 논의에 더해 집행과 체감의 차원을 결합하는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출국 전 교육, 취약가족 지원, 계절근로 등 제도 논의가 존재하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www.kci.go.kr

작동하며 어떤 집행 격차와 접근 장벽을 낳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충분히 축적될 때 정책 제언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 및 노동 관련 의제는 체류지위와 제도 접근성 문제와 긴밀히 연동되는 만큼, 분야 간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KCI 기반 표본 확정과 분류 체계를 통해 '한국 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의 축적 구조를 가시화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제 코딩의 세분화(세부 주제군의 정교화), 시기별·분야별 교차 분석의 확장, 그리고 2021년 이후 신흥 의제의 지속성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적 추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내 베트남 관련 다문화 연구의 축적이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연구가 정책·교육·보건·지역사회 실천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민(2020). 대상화된 존재로서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문학의 윤리, 〈어문학〉 150, 145-176쪽.

김경민(2022). 한국소설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재현 양상 — 서성란의 「파프리카」, 『쓰엉』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1(1), 89-108쪽.

김선경·유수화·장지혜·조윤주·양윤희·임동선(2019). 베트남어-한국어사용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교,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2), 288-298쪽.

김순양·고수정(2016). 결혼이주여성의 빈곤원인 탐색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241-281쪽.

김연수(2016).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영향요인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427-434쪽.

김영옥·김현미(2013). '글로벌 가구(Global Householding)' 구성의 관점으로 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가족, 〈젠더와 문화〉 6(2), 177-213쪽.

김영수·이수정·박민경(2025). 경상남도 미등록 베트남 이주민 임산부의 산후 관리 경험,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9(4), 153-168쪽.

www.kci.go.kr

김종애 · 김종일(2020). 베트남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문화이해교육 방안: 베트남 설화 '땀'과 '깜'을 중심으로, 〈동서 비교문학저널〉 54, 75-94쪽.
김혜선(2015). 송금행위를 통해 본 가족관계의 협상과 딜레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1), 202-232쪽.
김혜수 · 최선희 · 유한별 · 이헌율(202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유튜브 이용을 통한 이주국 정체성 만들기와 출신국 정체성 유지하기, 〈한국방송학보〉 38(5), 5-53쪽.
김효선(2024).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을 통해 본 시민 평생 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4(1), 25-50쪽.
노영순(2014).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 난민과 한국 사회, 〈사총〉 81, 329-364쪽.
박균열(2008). 다문화시대 베트남 관련 내용의 한국 중등 도덕교과서 반영 방향, 〈동남아연구〉 18(1), 97-120쪽.
박나래 · 김한근(2024). 국내 언론의 다문화가정 논의 키워드 분석 및 동향 분석 연구: 2006~2023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3), 49-76쪽.
박윤경 · 박선욱(2022). 다문화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2008-2021)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4), 111-132쪽.
박정은 · 장인실(2023). 이중언어를 활용한 교과수업이 초등 베트남 다문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인지적 · 기능적 · 정서적 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3), 277-294쪽.
서수진 · 성철재(2015).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모음 음향 특성: F2 기울기를 중심으로, 〈언어학〉 72, 201-216쪽.
송주은 · 서은희(2022). 이중문화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대한 비대면 게슈탈트 미술치료의 효과: 한국-베트남 다문화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1013-1031쪽.
신상철(2015). 국내 베트남 범죄조직의 범죄유형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7(5), 165-201쪽.
신유경 · 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3), 109-122쪽.
양민정(2013). 세시풍속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이해 교육 방안 연구 - 한국 · 중국 · 베트남의 3대 명절을 중심으로 - , 〈세계문학비교연구〉 44, 85-137쪽.
양민정(2015). 전통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 문화교육 방안 연구 - 한국 · 중국 · 베트남 세 나라를 중심으로 - , 〈국제지역연구〉 18(5), 183-218쪽.
양민정(2018).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 - 한국 · 중국 · 베트남을 중심으로 - , 〈한국고전연구〉 40, 163-199쪽.
오정미(2020).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1281-1298쪽.

www.kci.go.kr

유승희(2019). 중국, 베트남, 필리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이 주관적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외국인 어머니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미래사회복지연구〉 10(1), 139-172쪽.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쪽

윤희만(2024).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서 계절 이주노동자의 선택과 적응의 이해 - 베트남 계절 이주노동자의 열망(aspirations)과 역량(capabilities)의 관점에서 - , 〈지역과 세계〉 48(4), 61-88쪽.

이진석(2018). 해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이혼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 , 〈인문사회 21〉 9(3), 771-784쪽.

이효림(2017). 국내 다문화 그림책에 나타난 동남아시아 문화 요소 분석 -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 ,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1-24쪽.

전혜경 · 김근태(2010).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한 한국 - 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민족성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3, 725-770쪽.

정복례 · 유광자 · 김지숙(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가족과 문화〉 26(2), 221-244쪽.

정유경(2018). 한국과 베트남 초등 수학교과서의 비교 분석 - 평면도형과 넓이 측정을 중심으로 -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2(4), 517-538쪽.

정의철 · 정미영(2018). 베트남 이주여성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가 문화적 시민권 구축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베트남 목소리〉 팟캐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5), 136-172쪽.

정유진 · 서은숙(2025).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 배경 승려 자비 실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베트남 · 캄보디아 · 스리랑카 · 네팔 출신 승려 4인의 실천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52, 249-281쪽.

조영숙 · 박상현(2025). 한국어를 활용한 후기 청소년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 탐색: 베트남 다이남 대학교 한국어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9(3), 241-270쪽.

조흥국(2013). 12-14세기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이주에 대한 재고찰, 〈석당논총〉 55, 33-63쪽.

조항록(2016).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 실시와 현지교육기관의 대응: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0(1), 1-19쪽.

차정화(2024). 차(茶)문화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차문화 · 산업학〉 64, 111-133쪽.

최대희(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됨'의 의미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9(2), 233-256쪽.

www.kci.go.kr

최서희・백일순・Bui Thi My Hang(2023). 외국인 이주자의 모빌리티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의 특성-한국 내 베트남 이주자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8(3), 217-235쪽.

최호림(2015). 국제결혼에서 귀환까지: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 경험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34(1), 143-182쪽.

표정옥(2024). 다문화시대 문화지식 공유로 생성하는 공존의 인문정신 연구-공자의 '서'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베트남의 '아기장수' 설화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4(1), 209-236쪽.

홍종명(2013).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학습 요구분석 연구, 〈동남아연구〉 23(1), 199-222쪽.

홍종명(2014).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남아연구〉 24(2), 241-268쪽.

황상심・이숙향(2011).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말소리 오류 비교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181-189쪽.

황상심・김수진(2015).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오류패턴,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3), 456-468쪽.

Bui Thi My Hang(2022a). *Place-making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The Case of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공간과 사회〉 32(1), 166-193쪽.

Bui Thi My Hang(2022b). *The Marriage Migration Regime of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Evolving Roles of Governments, Matchmakers, and Migrants*, 〈아시아리뷰〉 12(1), 421-452쪽.

Nguyen Thi Thanh Lan & Krieger David Alan Lee & Nguyen Van Cuong & Shin Julia Jiwon(2022). *The Family Migration of Vietnamese Students in Korea*, 〈OMNES〉 12(1), 25-61쪽.

Nguyen Thi Thanh Lan & Nguyen Van Cuong & Thibault, Natalie & Shin Julia Jiwon(2023). *From Legal Immigrants to Undocumented Workers: A Case Study of Vietnamese Migration Families in South Korea*, 〈OMNES〉 13(2), 1-41쪽.

www.kci.go.kr

필자 소개

성　명 이태희
소　속 호찌민인문사회대학교 베트남학 박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월드컵대로 91번길 5-1
전자우편 taeheeok@naver.com

성　명 하동환
소　속 하노이국립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51번길 46, 111-1601
전자우편 ngonnguviethdh@gmail.com

www.kci.go.kr

Abstract

Vietnam-Related Research Trends in Korean Multicultural Studies
- A Review of KCI-Indexed and KCI-Candidate Journals -

Lee, Tae-hee · Ha, Dong-hwan
(VNUHCM · Hanoi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ccumulative trends of "multicultural research related to Vietnam in South Korea" published in KCI-registered and candidate journals through a literature-based trend analysis. Going beyond the intent to essentialize a specific ethnicity,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trace the trajectory of knowledge production-specifically, how Korean multicultural discourse has represented and objectified groups with a Vietnamese migration background. Initially, 588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KCI database using seven search terms; after reviewing thematic relevance and removing duplicates, 159 articles were finaliz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veals that related research has increased since the 2010s, peaking between 2016 and 2020 (58 articles), with studies targeting multicultural individuals comprising the overwhelming majority (78%). By academic discipline, the social sciences (59 articles) and education (31 articles) predominated, and case studies were the most prevalent methodology (55.3%). Thematically, the research was heavily concentrated on three main axes: marriage migration and family, cultural content-based intercultural education, and maternal-child health and mental health. However, since 2021, an expansion of new perspectives has been observed, including the multi-layering of migration pathways, digital identities, and regime and spatial analys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multicultural research should be reconfigured to move beyond the conventional focus on the adaptation of migrants themselves. Instead, it must

www.kci.go.kr

foreground interactions with mainstream society-including non-multicultural members-and emphasize institutional and relational contexts.

|Key words| Trends in multicultural research, Vietnamese migration background, Intercultural education, Relational context, Multi-layered migration pathways

투고일 2026. 02. 25 / 심사일 2026. 03. 18 / 게재확정일 2026. 03. 23

www.kci.go.kr